

SK 텔레콤, 2025 년 3 분기 실적 발표

- 연결 기준 매출 3 조 9,781 억 원 · 영업이익 484 억 원
- AI 사업 매출 전년 대비 35.7% ↑ ... AI DC·AIX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 강화
- 고객 신뢰 회복 위해 '책임과 약속' 프로그램 중심으로 고객보호·서비스 혁신 지속 추진

[2025. 10. 30]

SK 텔레콤(대표이사 CEO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은 2025 년 3 분기 연결 기준 매출 3 조 9,781 억 원, 영업이익 484 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
3 분기에는 '고객 감사 패키지' 시행 등의 영향으로, 매출은 전년 동기 12.2%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90.9% 감소했다. 별도 기준 매출은 2 조 6,647 억 원, 영업손실 522 억 원, 당기순손실 2,066 억 원으로 집계됐다.

유무선 통신 사업은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 5G 가입자는 1,726 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약 24 만 명 증가했으며,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순증으로 전환됐다.

또한 AI DC 사업은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와 GPU 임차지원사업 수주에 힘입어 1,498 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, AIX 사업 또한 557 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.

■ AI 사업 35.7% 성장... AI DC·AIX 중심 중장기 성장세 본격화

SKT 는 분산되어 있던 전사 AI 역량을 AI CIC 로 재편해 AI 중심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SKT 는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AWS 와 추진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 기공식을 지난 8 월말 개최하며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돌입했고, 오픈 AI 와 서남권 전용 AI DC 구축 MOU 를 체결해 향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에이닷은 'A.X 4.0'과 'GPT-5' 적용을 통해 대화 품질과 서비스 확장성을 높였으며, 티맵에 확대 적용해 고객 접점을 강화했다. 또한 SKT 는 '에이닷 비즈'를 중심으로

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산을 추진하며, 기업용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아울러, SKT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'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' 프로젝트에 참여해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.

■ 정보보호·서비스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 경영 강화

SKT 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, '책임과 약속'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객 보호와 서비스 혁신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.

SKT 는 '제로 트러스트(Zero Trust*)' 기반의 글로벌 최고 수준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, 향후 5 년 간 총 7,000 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'정보보호혁신안'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.

* 제로 트러스트: "아무도 신뢰하지 말고, 계속 검증하라"는 보안 철학. KISA 2.0 가이드라인 준용

이와 함께 SKT 는 '고객 감사 패키지'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, 데이터 추가 제공, T 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총 5,000 억 원 규모의 혜택을 8 월부터 순차 제공하고 있으며, 6 개월 내 재가입 고객의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 복원 제도도 도입하는 등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SKT 김양섭 CFO 는 "SK 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, AI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, 더 단단한 회사로 나아가겠다"고 밝혔다.

<첨부1>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(단위: 십억 원)

	25.3Q	24.3Q	YoY	25.2Q	QoQ
매출	3,978	4,532	△12.2%	4,339	△8.3%
영업이익	48	533	△90.9%	338	△85.7%
순이익	△167	280	적자전환	83	적자전환

<첨부2>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(단위: 십억 원)

	25.3Q	24.3Q	YoY	25.2Q	QoQ
매출	2,665	3,203	△16.8%	3,135	△15.0%
영업이익	△52	457	적자전환	251	적자전환
순이익	△207	222	적자전환	37	적자전환